



“서귀포에 문학관 짓자”... 문인들 추진위 구성

서귀포문인협회 이달 출범
윤봉택 시인 위원장 맡아
“현대문학의 뿌리 서귀포
미술관·문예회관 있는데
정체성 담은 문학관 없어”



서귀포를 노래한 도내의 시인들의 시를 새긴 조형물이 들어선 서귀포철심리시공원.

서귀포에 문학관을 짓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확대위원회의를 열고 ‘서귀포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한국문인협회사귀포지부(서귀포문인협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제22회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에 맞춰 문학관 건립 논의의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문학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의 숙원 사업으로 제주도립 제주문학관이 지어지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부지에 들어서는 제주문학관은 올해 하반기 개

관을 목표로 자료 수집과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서귀포문인협회는 공립 제주문학관이 제주시에 조성되는 만큼 그와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서귀포문학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지용, 박목월, 서정주 등이 일찍이 서귀포에 머물며 창작 활동

을 벌였던 점을 들며 한국 현대사와 현대문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향’ 서귀포를 담아낼 공간으로 별도 서귀포문학관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귀포 도심엔 서귀포를 노래한 도내의 시인들의 시를 등에 새긴 조형물을 설치한 서귀포철심리시공원이 조성

됐다.

서귀포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는 시인인 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이 추진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한기팔, 김순이, 오승철, 강중훈 시인이 추진위원을 맡았다. 추후 제주도, 제주도의회, 서귀포시의 참여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서귀포문인협회는 이달 28일 첫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학관 건립의 방향을 다룬다. 6월에는 다른 지역 문학관 현장 답사, 9월에는 서귀포문학제에 맞춘 서귀포문학관 건립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안정업 지부장은 “현재 서귀포에는 소암기념관, 기암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예술의전당이 존재하나 정작 전국 도시마다 있는 문학관은 없는 실정”이라며 “서귀포문학관 조성은 서귀포 출신 문학인들의 소망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뿌리이자 최남단 문학의 자존심을 지키는 물론 범정문화도시 서귀포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서귀포에서 문학으로 부르는 새봄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이달 28일 철심리시공원
김용길 시인 ‘영춘시’ 등

발전에 기여하려는 뜻에서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올해는 참석자를 최소 인원으로 제한해 이달 28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철심리시공원에서 시로 봄을 여는 행사를 펼친다.

이날 행사는 한기팔 시인의 취지문 낭독에 이어 김용길 시인의 영춘시 ‘봄맞이 노래’, 다문무용단의 ‘탐라의 향기’ 공연으로 문이 열린다. 그중 김용길 시인은 “지난 겨울은 혹독했고/ 길기만 하였다/ 한서리 추위보다/ 더 무섭고 암울했던 위기와 불안의 날들/ 아직도 그 시련의 날들은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구절로 코로나라는



서귀포문인협회의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기나긴 계절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소망하는 시를 준비했다.

서귀포 시인들의 시에 바탕을 둔 노래와 연주도 잇따른다. 오승철 시인의 ‘닐모리 동동’ (노래 김영범), 윤봉택 시인의 ‘그날에’ (노래 조승

훈, 기타 연주 김동준)을 만날 수 있다. 문상금 시인, 정영자 수필가 등도 봄을 여는 시를 낭송한다. 서귀포문인협회는 이날 비가 올 경우 행사장면을 유튜브로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예술창작준비 신청 몰려 올해 신설 유형 93건 접수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에도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17일 5억9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6개 유형에

총 1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모 접수 건수를 지원 유형별로 보면 예술공간지원 35건(20년 28건), 제주원로예술인지원 10건(20년 7건), 문화예술연구와 비평지원 8건(20년 12건), 예술활동기록지원 18건, 예술창작준비지원 93건(개인 창작활동준비지원 60건, 단체 창작활동준비지원 11건, 창작역량강화

지원 22건), 국제예술교류지원 9건(20년 28건)이다. 장르별로는 문학 20건, 시각예술 58건, 공연예술 75건(연극 18건, 무용 15건, 음악 37건, 전통 5건), 다원예술 20건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문학은 16건, 공연예술은 49건, 다원예술은 8건이 늘었다.

제주문예재단은 “신설 유형인 창작준비지원과 예술활동기록지원이

2차 공모사업 접수건의 64%를 차지한다”며 “창작결과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유형을 신설하고 예술인 스스로 예술활동경력을 기록화하는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2차 공모지원사업 심의결과를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800-9134.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242>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맨. “누님, 우리 송애기 굴룬입이영 안 흥영 우리집 초흔 식솔로 질라보젠 흥영수다. 누님도 경 생각흥영 도웨졸서양.”
준네 골맨저, “알았저게. 오맹이야, 오날도 시 흥 구절 흥여보커메 들어볼타? —송애 먹는 감즈, 잘싹치고 앞 뒤 풀렝이 썩르고 그릇이 죽안 각시가 냉겨둔 감즈, 정지 구석이 흥 메를 놔두난 새쩍 나완 페와졌저. 눈물 하나 웃이 니 즈그물고 살아보젠 오몽을 흥영저.—” <제주어 용례 사전, 양전형 시인 저>. 오맹이야, 잘 들었디야? 송애기도 잘 질루곡 집이 어려운 일 느가 문 푸러가사 흥다.”

* 제주어 풀이

- *굴룬입(굴입) : <이름>정원이 아닌 더불어끼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굴입정.
- *안 흥영 : 안 해서. *졸흥다 : <그림>성질이 차분하다.
- *초흔 식솔로 : 참한 식구로. *질라보젠 흥영수다 : 길러보려고 해요.
- *숯다(숯뜨다, 숯) : <음식>익히려고 불을때다. 삶다. *감즈(감저, 감제) : <이름>고구마
- *각시가 냉겨둔 감즈 : 아내가 남겨준 감자.
- *흥 메를 놔두난 : 한 며칠 놔두니.
- *새쩍 나완 페와졌저 : 새일이 나와서 퍼지네.
- *하나 웃이 : 하나 없이. *니 즈그물고 : 이를 악물고.
- *살아보젠 오몽을 흥영저 : 살아보려고 움직이고 있다.

고재만 화백

청소년 제주어 뮤지컬 선보인다

학생문화원 초2~중3 선발
11월까지 버스킹 공연 등

올해 도내 청소년들의 제주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듯하다.

제주학생문화원은 올해 신규로 주말체험학교 ‘제주어 뮤지컬’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초2~중3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 뮤지컬 단원 30명 내외를 선발하는 비대면 오디션을 진행한다.

오디션 참가 신청은 제주어 동요 지정곡을 암보한 후 노래하는 동영상과 오디션 참가 신청서를 3월 18

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herial@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3월 26일 제주학생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 인재 육성과 제주 문화 이해를 위한 제주어 뮤지컬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말체험학교 ‘제주어 뮤지컬’은 매주 토요일 2시간 씩 운영된다. 제주학생문화원은 운영 기간 중 버스킹 공연과 11월 말 열리는 제주교육 문화예술축제 개막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임
한국병원 병원장

한 승 태

한국병원 병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무근성 이모네 일동
(순아·경이·현이)

축
CONGRATULATIONS
합 격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오 태 환
(전주시민축구단)
(부 : 오성부 · 모 : 김춘선)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동연합청년회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경희대학교 이학박사 학위
(식품생명공학)

오 선 민
(제주중앙여고, 경희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부 : 오윤부(前 한국공항공사) · 모 : 김은정
조부 : 오영춘(한림읍 명월리)

경희대학교 이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정진하여 학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림읍 명월리 큰아버지 가족 및 고모 가족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인하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임 보 애
(부 : 임월배 · 모 : 오순희)

인하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동리 서동 ‘비릿질’ 회원 일동